



미 증시, FOMC 안도감, 휴전 기대 상존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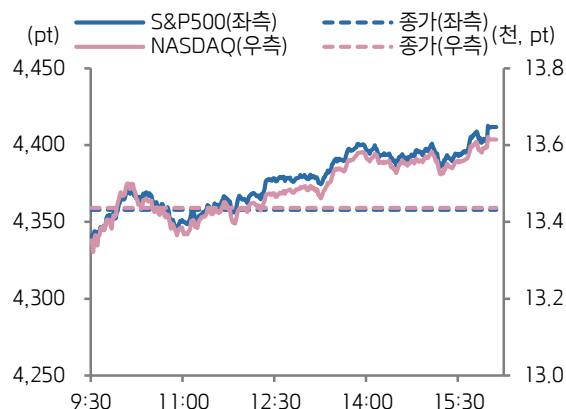
17 일 (목)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도 불구하고 전일 FOMC 불확실성 해소 기조, 견조한 경제지표 속에서 연일 상승. S&P500 지수는 장 초반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상 진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0.4%하락 출발. 다만 러시아 정부는 휴전 조건들을 제시하며 시장의 휴전 낙관은 어느정도 지속되었고, 전일 FOMC 불확실성 해소, 견조한 경제지표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이날 VIX 지수가 3.8% 하락하는 등 전일에 이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임. 이날 진행된 BOE 통화정책회의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상 진행(다우 +1.23%, S&P500 +1.23%, 나스닥 +1.33%, 러셀 2000 +1.69%).

이날 경제지표 호조세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킴. 2 월 주택착공(MoM +6.8%, 전월 -5.5%), 산업생산(MoM +0.5%, 예상 +0.5%),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27.4pt vs 예상 15.0 pt, 전월 16.0pt),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 만 4 천명 vs 예상 22 만명) 모두 개선세를 보임.

업종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3.5%), 소재(+1.9%), 경기소비재(+1.9%)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업종들은 유틸리티(+0.5%), 필수소비재(+0.6%), IT(+0.7%). 다우 운송 지수는 1.3% 급등했고, 전일 5%대 강세를 보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7% 강세 흐름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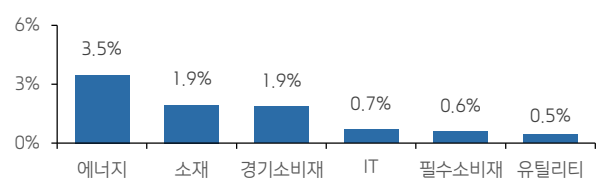
종목별로 코노코필립스(+4.2%), 엑손모빌(+2.7%) 등 에너지주들은 유가 급등에 힘입어 급등. 델타(+0.6%), 사우스웨스트(-0.8%) 등 항공/리오프닝주들은 혼조세를 보임. 이날 실적을 발표한 달러제너럴(+4.5%)은 실적 부진에 불구하고 배당성향 31% 상향 발표에 급등, 옥시덴탈 페트롤리움(+9.5%)은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분을 1,810 만주 늘렸다는 소식에 급등. 랄프로렌(+4.6%)은 JP 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영향에 급등, 맥도날드(-0.3%)는 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하향조정 여파에 하락(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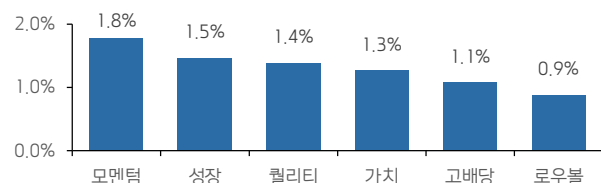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11.67	+1.23%	USD/KRW	1,214.34	-1.73%
NASDAQ	13,614.78	+1.33%	달러 지수	98.02	-0.61%
다우	34,480.76	+1.23%	EUR/USD	1.11	+0.01%
VIX	25.67	-3.75%	USD/CNH	6.36	+0.02%
러셀 2000	2,065.02	+1.69%	USD/JPY	118.61	+0.01%
필라. 반도체	3,364.55	+0.7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583.44	+1.28%	국고채 3년	2.217	-4.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02	-7.3bp
Eurostoxx50	3,885.32	-0.11%	미국 국채 2년	1.914	-2.4bp
MSCI 전세계 지수	695.25	+1.77%	미국 국채 10년	2.171	-1.4bp
MSCI DM 지수	2,936.33	+2.4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81.00	+5.28%	WTI	102.98	+8.35%
MSCI 한국 ETF	71.13	+0.87%	금	1948.2	+1.7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1.5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원/달러 환율 고점 이후 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 변화 가능성
2. 전거래일 단기 급등했던 2차전지, 반도체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3. 국제 유가 반등이 에너지 업종 추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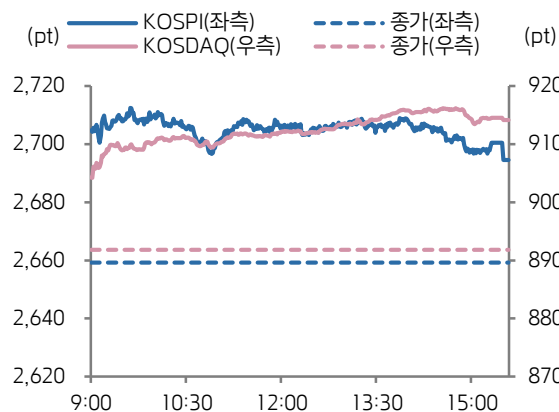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6 일 연준에 이어 17 일 영란은행(BOE)도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확대를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었음. 결국 올해 중앙은행들의 정책 주안점은 완전 고용 달성이 아닌 인플레이션 안정에 있으며, 이를 둘러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존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 즉, 인플레이션 전망 및 그에 따른 정책 경로 전망을 놓고 중앙은행이 시장과 간극을 얼마나 좁혀 나면서 긴축 정책을 단행하는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미국 증시가 3 월 FOMC 이후 2 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인 배경도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킨 측면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연준과 시장 참여자 간 시각 차이가 좁혀진 것에 따른 안도감 역시 일정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은 통상 금리를 인하할 때보다 인상할 때에 더 큰 부담을 느끼면 또 그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더욱 신경 쓰는 만큼, 향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시장 쇼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전쟁 상황 자체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한 그간 협상은 외교부 장관 급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터키의 주도 하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전쟁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 추이를 미루어보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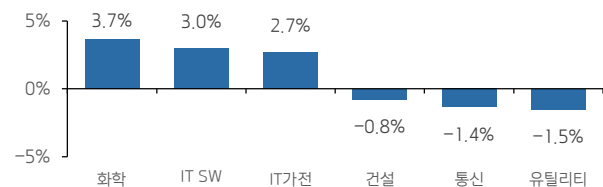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중앙은행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지속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했던 중화권 악재(봉쇄조치, 기술주 폭락 등)의 경우, 금일부터 선전시가 봉쇄조치를 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중국발 공급난 심화 및 장기화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전망. 물론 전거래일 급등했던 반도체, 2차전지 위주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존재. 다만, 에너지 가격 베타가 높은 일부 시클리컬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은 가격 메리트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한 저점 매수세들도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 줄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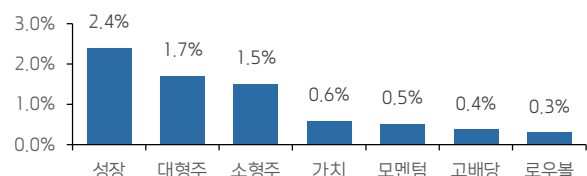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반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